

모두의 안전을 위한 2024,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의 시도

백승호 회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안선전국장

나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노동안전보건국장과 선전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과 활동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추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건강 보호,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고 있다.

노안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과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나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서 6년(노안 겸직 3년) 차를 지내고 있다.

선전실은 민주노총의 활동과 정책을 홍보한다. 그 외에도 언론 대응,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중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선전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매체를 활용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며,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민주노총의 활동을 기록하기도 한다. 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올해 내가 속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노안 사업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안전한 2024'라는 구호로 교육과 캠페인을 매월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석유화학단지, 화

력발전소 단지, 대공장과 크고 작은 제조업 공장이 몰려있어 산업재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재해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 모두가 어떤 위험이든 노출되면 안 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위험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와 길거리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죽음의 소식과 재해 피해 소식을 전해 듣는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 알람을 통해 전해진 충남지역 중대재해는 약 50여 건이다. 하지만 사업장을 추적하고 유족을 만나서 대응한 사건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소규모 공사 현장이 많았다. 재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 노동자들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산업재해’를 넘어서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도 더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한다. 2023년 여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남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남 일 같지 않았다. 사회적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노동자이고 우리의 지인이고 동료이다. 충남 지역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 이런 관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매달 노동안전보건 교육과 캠페인을

그러면서 모두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 질문하게 되었다. 교육과 대시민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유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일터와 사회에서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지 고민하기 위해 교육을 듣고, 이를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한 실천 활동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매월 하려던 캠페인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교육은 벌써 1월부터 3월 까지 세 차례나 진행했다. 1월은 「왜 자꾸 일하다 죽는가,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의 강의를 들었다.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50년 전 영국에서는 어떤 답을 내리고, 이후 어떻게 움직여 나갔는지를 들어보고자 했다.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사회 전체가 이 질문을 무겁게 던지고 변화해나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2월은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전국불안정노동철폐



▲ 2023년 4.28 세계산재피해노동자 추모의날 퍼포먼스(천안). 출처: 백승호

연대 김혜진 활동가로부터 교육을 들었다.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응하고 있는 투쟁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참사로 번지는 것에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되어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강의였다. 안전권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는 데 사회적으로 뜻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3월은 여성의 달을 맞아 「일하다 아픈 여자들은 왜! 잘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했다. 일하는 여성들의 산업재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알아보고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었다. 여성의 산재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직장 내 성차별, 산재 신청 절차의 복잡성, 여성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노동 안전보건에 대한 시야 자체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질문들.

무수히 많은 법령과 연구 결과가 있지만, 재난과 재해는 감소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피해 책임도 여전히 반복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캠페인을 벌이며 질문하려고 한다.

일터에서 사회에서 재난과 참사는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일터에서 사회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일터에서 사회에서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나 안전한 2024년을 위해 외치고 있다. 



▲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2024 여성파업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여성 노동자 임금 및 승진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돌봄의 공공성 강화, 임신중지 건강보험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외쳤다. 사진 : 백승호